

고흥~완도·고흥~봉래 국도 승격...남해안 관광벨트 탄력

국토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상반기 중 도로노선지정 고시 예정

전남도내 고흥~완도 지방도와 고흥~봉래 지방도가 각각 국도27호선 기점 변경과 국도15호선 연장 등을 통해 국도로 승격됐다. 이들 구간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주요 노선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에 반영돼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도 9개 노선(168.9km)과 국가지방도 5개 노선(93.6km) 등 전국 14개 노선(262.5km)의 승격을 발표했다. 전남도에서는 고흥~완도와 고흥~봉래 2개 노선이 국도 승격에 포함됐다. 앞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도로노선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고흥~완도 간은 지방도 830호선으로 '바다 위의 바닷길'로서 총연장 42.4km 중 기계설 고금도~평일도~금당도~거금도 27.4km에 총사업비 9008억원을 투입해 해상교량 5개를 짓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내륙으로 우회해 2시간 이상 걸렸지만, 전 구간이 연결되면 완도에서 평일도와 금당도를 거쳐 고흥까지 30분 이내로 통행이 가능해져 관광객과 주민 교통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흥~봉래 간은 국가지방도 15호선으로 국가기반시설인 나로우주센터까지 진입하는 도로다. 한국형 발사체·인공위성·첨단장비 이송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4차로 확장이 대두되고 있던 곳이다.

그동안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일부 개량을 하기도 했으나 대형시설 및 장비운반을 위해서는 3000억을 투입하는 4차로 확장이 시급히 요청되는 곳이었다. 앞으로 고흥~봉래까지 전구간이 국도 15호선이 되면서 4차로 확장을 위한 국가계획 반영이 더욱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번에 국도승격된 6.1km를 포함해 총 23.7km에 3075억원이 투입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고흥~완도 등 국도승격으로 남해안 관광벨트를 완성하고 섬 주민들의 이

동 편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국도 승격과는 별도로 장흥~득량도~고흥, 진도 조도, 완도 청산도 등 해상 연결을 포함한 지방도로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검토를 계획하고 있다. 시·군과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섬과 바다,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 도내 어디서나 1시간 대 연결 도로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지역 차원 철저한 대응 필요”

광전연, 전남 수산물 수입현황 분석 방사능검사 강화·해수모니터링 확대

일본 정부의 원전수 방류와 관련 만일의 사태를 준비하기 위해 전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와 해수 모니터링 횟수 확대 등 지역 차원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2일 인포그래픽 발간으로 전남의 수산물 생산·소비와 광주·전남 수산물 수입 현황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전남의 수산물 생산량은 186만9000t으로 전국 최고의 생산량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해조류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89.6%를 차지하는 생산량인 158만6000t을 전남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갑각류의 경우도 전국 생산량의 38.4%인 3만 1000t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산물 소비량의 경우 연간 1인당 68.1kg으로 수산물 소비량 세계 1위를 기록한 반면 수산물 자급률은 2011년 81.0%에서 2018년 69.3%로 낮아지고 있어 수입 수산물 증가로 식탁 안전 위협이 고조될 수 있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중국의 수산물 수입량이 4만98t으로 전체 수산물 수입량 중 58.8%를 차지했다. 이외에 칠레 1만5559t(22.8%), 페루 2812t(4.1%), 미국 2753t(4%), 베트남 2711t

(4%), 일본 115t(0.2%) 순으로 수산물을 수입한다. 박은옥 연구위원은 “일본 수산물 유입은 적은 비중이지만 중국과 칠레 등의 수산물 수입 비중이 높아 하나뿐인 바다의 오염이 일상의 즉각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 이후 해양방사선 물질 조사 정점 확대, 선박방형수 등 통한 원전 오염수 유입 대응, 수산물 안전 확보 강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2일 오전 시청 12층 광주시대학발전협력단 사무실 현판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김용집 시의회 의장, 윤영덕 국회의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정성택 전남대 총장, 민영돈 조산대 총장, 김학중 광주대 총장, 박상철 호남대 총장, 이민숙 동강대 총장 등 참석자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17개 대학, '대학발전 협력단' 공식 활동 신입생 미충원·취업난 등 해결...내년부터 상시조직 확대

광주시, 시교육청, 17개 대학이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1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대학발전 협력단 출범식을 열었다. 협력단은 신입생 미충원 등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는 조직으로, 행정부시장 직속이다. 5개 대학, 시교육청에서 파견한 인력 등 10명이 시청에 상주하며 대학별 현황을 파악하고 소통한다. 광주시, 시의회, 시교육청, 지역 17개 대학은 지난달 8일 지역대학 위기 대응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력단은 신입생 미충원, 취업난 등 현안과 관련해 대학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함께 찾고 단·장기 과제별 발굴해 연차별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캠퍼스 순회 포럼, 전문가 조언

등을 토대로 현실 여건을 공유하고 공동 의제를 발굴한다. 광주시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대학 지원 관련 28개 사업을 총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인공지능·미래 차·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체계 구성, 법·제도 개선, 공공기관·기업 지역 인재 취업률 제고, 정부 공모사업 발굴, 신입생(유학생) 유치 지원 등도 추진한다. 현재 상시 실무 협의회(태스크포스) 형태인 협력단을 내년부턴 상시 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저출산 문제가 화형인 구 감소, 대학 신입생 미달, 지역의 위기로 치달는 상황을 뚫고 뚫어 헤쳐나가기 위해 협력단을 구성점 삼아 의미 있는 혁신 성과를 도출하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결식아동 급식단가 한끼 5000원→6000원 인상

광주 결식아동 급식 단가가 끼니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원 계획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11일 심의·의결했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관련 예산은 아동 급식 106억 3500만원, 토요일·공휴일 결식아동 급식 25억 4300만원이다. 광주시는 예초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500원을 더 인상하도록 6억6000여만원을 증액했다. 지난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 급식 단가는 올해 다시 1000원이 올라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6000원)을 충족하게 됐다. 급식단가 인상을 요구해 온 교육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결식아동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들에게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결식아동 지원 대상은 아동 급식 1만5417명, 토요일·공휴일 결식아동 급식 4050명 등 1만 9467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목포에 '소셜 캠퍼스 온' 10월 개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선정...7월 입주기업 모집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한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 공모에서 목포시가 최종 선정됐다.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사회적기업 교육을 담당하는 의미의 '캠퍼스'에 '따뜻하다'와 '성장하다'에서 따온 '온'을 더해 '소셜 캠퍼스 온'이라고도 한다. 매년 입주기업을 모집해 평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상시 상담과 교육, 네트워킹, 협업 등 다양한 성장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일반인 대상 사회적경제 관련 강좌도 운영하는 등 전남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거점 역할을 한다.

목포에 조성될 성장지원센터에는 20개의 기업 입주 공간과 협업 사무실을 비롯해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과 휴게공간 등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총 10억원이다. 3명의 운영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이에 따른 센터 운영비로 매년 2억2000만원이 5년간 지원된다. 운영사와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통해 오는 7월 개소 예정이고, 9월까지 공간 구축을 완료해 10월 개소할 예정이다. 장정희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전남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센터가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이란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단독심
사고 팝니다. 010-6837-4700

돈·늘분
법적보장. 010-3605-5000

2021학년도 후기 전남대학교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래밍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지를 활용한 효과적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주요일정

구분	일정	장소 및 안내사항
입학원서 작성(인터넷으로만 작성)	2021. 6. 1.(화) 09:00 ~ 6. 10.(목) 18:00	산업대학원 홈페이지(http://gsit.jnu.ac.kr) 원서 작성(인원) 후 원서 등록 클릭
구비서류 제출(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2021. 6. 1.(화) 09:00 ~ 6. 10.(목) 18:00	• 제출장소: 산업대학원 행정실 공과대학 4호관 202호 • 제출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우81186
전형일시	2021. 6. 23(수) 10:00 ~	지원학과(전공)에서 지정된 장소(신분증 반드시 지참)
합격자 발표	2021. 7. 7(수) 10: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친환경농업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계약학과)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요양병원 「급매매」

토지면적 | 10,162㎡
건물면적 | 7,296㎡ (총 3동)

- ▶1동(2017년 준공) : 3,507㎡
- 지하 1층 ~ 지상 4층
- 베드 수 : 200베드
- ▶2동(2012년 준공) : 2,336㎡
- 지상 1층 ~ 지상 4층
- 현재 주간 요양 보호 30명
- 요양일 90명
- 추천용도 : 암 병동 또는 치매 병동
- ▶3동(2008년 준공) : 1,453㎡
- 지상 1층 ~ 지상 3층
- 현재 장례식장 운영 중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매매가격 | 118억원
상담문의 | 010-3605-8564 (임선희)
나주시 우정로 56 리치타워 A동 101호
전남공인중개사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함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한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익이 이익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분묘소재: 전남 무안군 일포읍 지평리 255-2
- 분묘가수: 1기
-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 개장방법: - 유언장: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처리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연차청소: 한국개발공사(현) 광주지사
- 연차기간: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 신고 시 구비서류: 신고서(연고자)는 사장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서(부)는 분묘위치를 관계법령(제8조, 제9조)을 준, 가인, 사실 확인서 등 구비하여 상거 공고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에 갈음합니다.

2021년 5월 13일
공고인: 임선희

합병 공고,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익제출 공고

주식회사 연앤이(이하 "갑"을 주식회사 전메디(이하 "을"을)는 2021년 5월 12일 개최된 2차 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 합병으로 존속하는 "갑"은 소멸하는 "을"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100%)를 소유하고 있고 본 합병으로 인한 손실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273조의2(간접합병) 및 527조의2(소규모합병) 규정에 따라 "갑"은 이사회결의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을"은 주주총회 결의로 본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갑" 및 "을"의 주권을 소지하신 주주는 주권을, 본 합병에 이의가 있으신 주권자는 이의를 본 공고제출 마감일(이하 "제출 마감일")에 "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3일
「갑」 주식회사 연앤이 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의동로 288, 303호, 304호, 305호, 306호, 307호, 314호, 99호에 대표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대표이사 최대호

「을」 주식회사 전메디 카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신학빌딩동 705-2호
(용봉동, 전래대교)
대표이사 원용관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명배(581026-XXXXXX)
• 최종주소: 순천시 역전길 67, 805호(조곡동)
• 피상속인 망 김명배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년21호로 신청하여 2021년 5월 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 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 에 채권신고를 하지시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5월 13일

• 상속인: 민찬서(110509-XXXXXX)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친권자 부) 민지환, 법정대리인(친권자 모) 김아진
승인서 광양읍 남문2길 13, 401호 (수정빌라)

• 신고기간: 2021. 5. 13. ~ 2021. 7. 22.
• 채권신고처: 상속인 법정대리인(친권자 부) 민지환, 법정대리인(친권자 모) 김아진의 주소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220 병역법위반
• 피고인: 김준수
위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기 소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 되었음을 공시함.

2021년 5월 1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오연수

산행안내

5월23일(일)
▲광주서산약회 5월23일(일) 총 남 태안 해안국립공원해변길&

장항송길, 기절포, 신성리갈대 숲길, 염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누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서산약회 ☎ 010 7794 6920

광주일보 kwangju.co.kr
구독 | 신문 220-0551
문의 | 예향 220-0550

光州日報 光고판의 092-227-6900